

2012 우수교양도서에 불교 도서 3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선정하는 2012 올해의 우수교양도서에 <사찰의 상징세계>(자현 스님·불광출판사)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주경 스님·마음의 숲) <경전순례>(정운 스님·조계종출판사) 등 3권의 불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 책들을 포함한 279개 출판사의 도서 418종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1968년부터 국내의 양서 출판 진척을 위해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철학, 예술, 아동·청소년 등 총 12개 분야의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올해는 887개 출판사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도서 총 5143종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12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71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단은 40일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을 거쳐 279개 출판사의 도서 418종을 최종 선정했다. 또 선정도서 중 독창성과 대중적 가독성 등을 고려해 5% 내외의 최우수도서를 선별했다.

최우수도서에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이병훈 지음, (주)문학동네 펴냄)'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김희준 지음, 생각의힘 펴냄)' 등 19종이 선정됐다.

선정도서는 총당 각 500만 원(최우수 도서는 75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연말까지 공공도서관, 복지 초·중·고등학교, 병영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2천여 곳에 배포된다. 김주익 기자

불교·사회 접점 찾는 언론 발굴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교계 기자 첫 언론인상

올해 20주년을 맞은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에 본지 최정희 편집이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본지 편집국의 '서원의 종교 불교 - 함께 행복합시다' (연중기획 '나의서원 나의신행')는 신문부문 우수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과 사단법인 보리는 11월 21일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KBS 1TV의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가 선정됐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금강신문 남동우 기자의 '장인을 찾아서'가, TV부문에는 아리랑TV의 'Arirang Prime - Christ



올해 불교언론인상에 선정된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선정된 KBS 1TV의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의 한 장면

본지 '나의 서원...' 우수상 영예

1992년 보리방송상으로서 시작

110여작 수상... 대표 언론상 '우뚝'

meets Buddha'가 최우수상, SBS의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 법륜스님 편'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가 1992년 제정한 이래 불교언론문화상은 사회에 불교를 알리는데 노력한 방송인들과 단체들에게 수상돼왔다. 현재 불교계 대표언론상으로 자리잡은 불교언론문화상은 처음 한 사람의 원력으로 시작했다. KBS방송작가로 일하던

해금제일(사)보리 이사장은 1989년 '언론이 종교편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불자들의 성토를 듣고 고민 끝에 1990년 3월 보리방송모니터회를 창립했다. 2년 뒤 1992년 탄생한 것이 '보리방송문화상'이다.

보리방송문화상은 1993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2004년 제12회까지 시상했다. TV와 방송 부문에 한정됐던 보리방송문화상은 2005년 불교언론문화상으로 이름을 바꾸며 신문부문을 신설하고 2006년 출판부문, 2008년 인터넷부문을 시상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춰 분야를 넓혔다. 보리방송문화상과 불교언론문화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2007년 대상 '차마고도' 2009년 대상 '출가, 그 후 10년', 2008년 신문부문 최우수상 '하늘이 감춘 땅',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BBS기록만남 900회' 등 110여 작품에 이른다.

2011년 신문 심사를 맡았던 김부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을 축하하며 "불교와 사회의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불교언론이 무애와 원운의 열린사고로 사회 등불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의 불교언론인상 수상은 불교언론의 기자 출신으로서의 최초다. 최정희 편집이사는 1975년 불교신문 공채 기자로 불교언론에 몸담은 이후 불교신문 취재부장, 편집부국장, 현대불교신문장간 편집국장을 역임하는 등 40년 가까이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문화·출판 전문기자로 불교문화 우수성을 기획 발굴 보도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 편집이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불교방송 BBS 초대서, 자비의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로 복귀해 불교신행과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불교전설99>와 <잘사는 법99>가 있다.

“뜻밖의 선물이라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최 편집이사는 “일할 수 있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언론문화상 20주년을 축하하며 불교언론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음식 판매수익금으로 티베트 돕는다”

금강경독송회, 아름다운 동행에 500만원 전달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1월 21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에 티베트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번 자비나눔기금은 금강경독송회의 회원들이 직접 생산하는 매주, 된장, 참기름과 옷가게 등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해 눈길을 끈다. 이 기금은 티베트 다람살라 지역의 NGO단체를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금강경독송회는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티베트 다람살라 지역의 불우이웃의 급식

비 지원을 위해 매년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한다.

김재용 대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앞장서며 꾸준히 불우이웃을 도와왔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500만원의 기금을 후원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후원동기를 밝혔다.

한편,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김재용 대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수행단체로 1973년 설립돼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1월 21일 아름다운동행에 티베트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사진 오른쪽이 김재용 대표.

문재인·안철수 후보 지지선언 연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에 대한 불자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재가불자들은 11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재가불자 108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대신 그가 새로운 정치도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최소한 국민의 열망을 쉽사리 꺾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 선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

자들도 11월22일 오후 2시30분 민주통합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민족화해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갈등 해소, 함께 잘살기 위한 경제민주화 기조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유일한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임을 확신한다”며 “1500 불교활동가들은 종교간 화합,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대표자들도 이날 민주통합당사에서 모임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불자 1080인' 모임은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선언했다.

불교인권상 일본 표법사 수상

11월 21일 조계사에서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18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11월 21일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산 표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교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는 “반핵반전 운동과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표법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표법사는 과거 일본이 조선에 가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활동을 실천하였으며, 매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조선인 위령탑에서도 위령제를 진행하는 등 평화인권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월간지 '마음꽃' 창간

한마음선원, 11월 창간호 발간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공부 잡지가 창간됐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어린이저널 '마음꽃' 11월 창간호를 발간. 어린이들이 마음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꽃'은 30여 페이지로 구성됐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 △응답하라, 너울샘 △아무나 쓰는 이야기 △내 마음의 물뿌리개 △Tea With Chong Go Sunim △생각쟁이들의 마음상자 등 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그리는 코너를 비롯해 이메일로 고민을 상담하고 답변을 듣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에서는 대행 스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들려준 법문을 수록했다. '아무나 쓰는 이야기'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고 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놓는 관(觀) 노트를 넣어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한마음선원 편집실로 영어 일기를 보내면 칭고 스님이 첨삭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코너도 마련됐다.

한마음저널측은 “불교 상식을 전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보편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선·악업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에서 11월호로 창간한 불교 어린이 잡지 '마음꽃'은 매월 1회 발간된다.

'마음꽃'은 매월 1회 발간될 예정이며 정기구독은 한마음저널 편집실에 문의하거나 이메일(maum2012@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031)470-3180

이은은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지함>

- 중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 중앙원로위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 중앙원로의원 혜원 (봉광사)
- 무진 (용수암 011-864-3369)
- 정수, 일파

- 중앙총회회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 포교원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 교육원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 호계원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 호법원장 법산
-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항 소현 (010-7757-5078)
-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4859-5312)

- 비구니회회장 혜명 범우 (백광사 051-804-3806)
-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 총무부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 감찰부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 규정부장 법승 (051-516-4494)
- 재무부장 모항 반아라라 (010-8620-4303)
- 문화부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 감사부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

전국 각 교구 총무원장

-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범승 (천황사 010-8988-9672)
-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왕사 010-4148-2402)

■장소: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일시: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중지 중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

입종 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 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부산진구 조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s.co.kr
- 장소: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501